

즉시 보도용

2025년 4월 25일

Contact: lamayornews@lacity.org

배스 시장, 산불 피해 입은 팰리세이즈 주민들을 위해 주택 재건 관련 수수료 징수 중단하는 긴급 행정명령 발동

로스앤젤레스 — 캐런 배스 시장은 오늘,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택 재건 비용을 줄이기 위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배스 시장이 이번 주 초 시정연설에서 예고한 바 있으며, 시 부서들이 재건 및 수리에 필요한 허가 및 설계심사 수수료의 징수를 중단하도록 지시한다. 이 조치는 시의회가 수수료 면제를 공식 승인하기 전까지 적용된다. 또한, 시장은 시검사실에 해당 수수료 면제에 관한 긴급 조례안을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긴급 행정명령은 트레이시 팍 시의원이 발의한 수수료 면제 조례안 추진을 더욱 앞당기는 조치다.

캐런 배스 시장은 “시 정부는 힘을 모아 장벽을 제거해야 하며, 오늘 발표한 조치는 피해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재정적 구제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의회의 최종 결정을 신속히 이끌기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트레이시 팍 시의원은 “이번 위기가 시작되자마자 재건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 면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주민들은 이미 충분히 고통을 겪었으며, 이 모든 일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다. 배스 시장께서 이 노력을 행정명령을 통해 신속히 앞당겨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조치를 영구화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주 발표된 추가 행정 조치

이번 주 수요일, 배스 시장은 팰리세이즈 지역의 재건 속도를 높이기 위한 두 건의 추가 행정조치도 발표했다.

- 로스앤젤레스 최초의 ‘설계심사 자가 인증(Self-Certification)’ 시범 프로그램 도입
- 건축 및 구역 코드에 따른 설계도면 검토를 지원할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추진

이달 초, 배스 시장은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두 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본격적인 복구 작업의 시작을 알렸다. 현재까지 시는 팰리세이즈 지역의 19개 주소지에 대해 총 27건의

건축 허가를 발급했다. 첫 허가 건은 팰리세이즈 산불 발생 57일 후인 2025년 3월 5일에 발급됐다. 이는 캠프 및 울시 산불 당시보다 2배 이상 빠른 허가 속도이다.

또한, 배스 시장은 행정명령 1호 개정을 통해 재건 관련 허가 검토를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시 부서에 지시했으며, 현재 LADBS는 평균 6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 이는 산불 이전보다 2배 더 빠른 속도이다.

###